

성경 그리고 토마스 아캠퍼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 묵상(136)(3/3/2022)

제 3 권 내적 위로

제 27 장 최고의 선을 이루는 데 가장 큰 걸림돌인 자기애, 1 절

마 6:22 -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네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골 3:5 -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1. <그리스도> 아들이야, 모든 것을 얻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내어 주어야 하고, 네 자신의 소유는 아무것도 없어야 한다. 네 자신을 사랑하는 것은 세상에서 그 어떤 것보다도 더 네게 해롭다는 것을 알라. 어떤 것에 대하여 네가 사랑과 애정을 쏟는 정도만큼, 그것은 네게 들러붙게 될 것이다. 너의 사랑이 순수하고 진실하며 합당한 것이라면, 너는 그 어떤 것의 포로도 되지 않을 것이다(마 6:22). 네게 허용되지 않은 것은 무엇이든지 탐하지 말고, 네게 걸림돌이 되거나 내면의 자유를 빼앗아갈 수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소유하지 말라. 네가 원하거나 갖고 싶어 하는 모든 것이 내게 있는데도, 네 자신을 내게 온전히 맡기지 않는 것은 정말 이상한 일이다.

말씀과 해설:

사도바울은 골 3:5 에서,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라고 말씀했다. 이 말씀은 골 3:1-4 에서 위의 것을 찾는 그리스도의 삶에 대해 가르친 다음에 주신 말씀이다. 위의 것을 찾는 주의 백성은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야 한다. 바울은 땅에 있는 지체를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과 탐심이라고 말씀했다. 이 다섯 가지는 최악된 옛 사람이 가지는 대표적 죄악이다. “음란”은 온갖 종류의 비정상적이고 불법적인 성적 행위와 성관계를 의미한다. “부정”으로 번역된 원어는 문자적으로 ‘정결하지 못한 것’이라는 뜻을 가지는데, 우상 숭배나 부도덕을 의미하기도 한다. “사욕”이라는 말은 수동적 성향의 감정적인 그리고 내면의 욕망이다. “정욕”은 능동적인 성향의 악한 욕구를 의미한다. “탐심”은 자신이 어떤 것을 가지고 있든 그렇지 않든 간에 더 많이 계속 가지고 싶어 하는 욕구를 의미한다.

우리가 눈 여겨 볼 부분은 탐심은 우상 숭배라는 표현이다. 왜 탐심은 우상 숭배일까? 탐심은 내가 탐하는 어떤 대상을 향하며 그 대상에 마치 숭배하듯이 집착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탐심은 특정 대상을 향한 숭배로 넘어간다. 돈을 지나치게 탐하면 돈을 숭배하는 것이 되고, 어떤 사람이나 물질적 혹은 비물질적 대상을 향해 집착하고 매달리면 그것이 곧 자신의 우상이 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이 부분에서 좀더 깊이 들어갈 필요가 있다. 우상 숭배는 결국 나 자신을 숭배하는 것이다. 내가 물질에 너무 의지하고 집착하며 매달리는 것은 결국 그 물질이 나를 위해 무엇인가를 해 줄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내가 특정 우상을 숭배하는 것은 그 우상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섬기고 그것에 헌신하는 마음이라기 보다는, 그 우상이 나에게 주는 어떤 보상이나 보살핌, 복 등에 대한 마음 때문이다. 이러한 깨달음을 가지게 하는 대표적인 본문이 출 32 장에 기록된 금송아지 사건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후에 시내산에 이르렀을때, 모세는 시내산으로 들어가 하나님과 대면하며 율법을 받고 있었는데, 그 때 산 아래에서 기다리던 백성들은 그 시간을 참지 못하고 자신들이 애굽에서 가지고 온 금 고리를 가지고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말하며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숭배했다.

우리는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들 때 그 목적에 대해 한 말을 유심히 살펴야 한다. **출 3:1 -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듬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라는 구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든 목적은 철저히 자기 자신들을 위한 것임을 알게 한다. 이들이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 제사를 지낸 모습은 이들이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서 형상을 만들었을 뿐이지 사실 하나님을 예배한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가지게 할 수도 있다. 그러나, 1 절에 기록된 그들의 의도를 볼 때, 이들은 하나님을 섬기려고 섬긴 것이 아니라, 철저히 자기들을 위한 신, 자기들을 섬겨줄 신이 필요했던 것이다. 그 신은 자신들의 목적을 이루어 주고, 자신들의 욕구를 채워주는 신이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을 섬긴 것도 아니고, 송아지 우상을 섬긴 것도 아니며, 자기 자신을 섬긴 것이었다. 바로 이것이 문제이다.

하나님은 십계명 제 2 계명에서 어떤 우상도 만들지 말라고 하셨다.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우상도 포함된다. 하나님은 특정 형상으로 표현될 수 없는 분이시다. 아울러 우상은 하나님을 왜곡시키고 엉뚱한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다. 하나님이라고 생각해서 만들어도 그것은 하나님이 아니므로 명백한 우상이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의 형상도 분명한 우상이다. 우상은 생명 없는 우상일 뿐이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섬겨야 한다. 그 방법은 말씀에 기록되어 있다. 그래서 말씀이 중요하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인간의 정욕, 탐심, 집착, 우상 숭배 그 모든 것은 인간의 이기적 자기애와 자기중심주의와 연결되고, 결국 인간은 자신을 신처럼 숭배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이다. 인간 내면에는 자기가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되고 싶은 마음이 들어 있다. 인간이 이러한 마음을 품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온전히 섬기기를 거부하는 것이다. 결국 참된 신앙은 자기애를 극복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진정으로 따르기 원하는 사람은 먼저 자기를 부인해야 한다고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이기적 자기애와 자기중심주의를 극복함으로 그리스도를 온전히 닮아가는 성숙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한다.

함께 나눌 기도 제목.

1. 내 안에 있는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을 제거하여 주시고, 왜곡된 자기중심주의와 이기적 자기애를 버리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온전히 사랑하고 섬기는 주의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2. 우리교회가 후원하는 기관들(Chasefu Theological College(Zambia), 콜롬비아개혁신학교(보고타), Columbus House(노숙자 사역), Ghana Maternity Ward Partnership, Hamden High school, IRIS(난민사역), OMSC, GMLF)을 성령의 은혜로 붙잡으시고 풍성한 생명의 열매를 맺어가게 하옵소서.
3. 대선을 앞둔 대한민국을 주의 성령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주께서 원하시는 나라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4. 오늘 하루의 삶이 주님께 합당하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의 모든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열납되게 하옵소서(시 19:14).